

채식을 해야 하는 윤리적인 이유

김성한

채식은 요즘 전 세계적인 이슈다. 채식주의자임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당이나 식품도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채식을 둘러싼 논의도 뜨겁다. 채식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 주장에 반박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점점 첨예해지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채식이 정말 윤리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표적인 윤리 이론인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논의내용

- 공리주의의 기본 특징
-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본 채식주의 둘러싼 쟁점들
 - 1) 고통에 대한 논의: 식물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가?
 - 2) 생태계와 관련된 논의: 동물이 서로를 잡아먹는 건 자연의 법칙이 아닌가?
 - 3) 건강에 대한 논의: 채식으로 건강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육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공리주의는 쾌락을 선, 고통을 악이라고 여기며 쾌락의 결과를 낳는 행위는 선으로, 고통의 결과를 낳는 행위는 악으로 규정하므로 ‘쾌락주의’적 성격을 띤다. 또한 어떤 행위도 그 자체로서는 선도 악도 아니며 그 동기보다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를 더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결과주의’,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고통이나 쾌락을 동등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보편주의’적 성격을 띤다.

공리주의자들은 어떤 존재가 다른 한 존재와 동일한 고통이나 행복을 느낀다면 그 고통이나 행복은 동등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이를 ‘이익 동등 고려의 원리’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A와 B가 있고 A가 100의 고통을, B가 0의 고통을 느낀다고 아주 단순하게 가정했을 때 공리주의자들은 A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성한

진화윤리학자. 함께 살아가는 삶, 채식, 진화론 등에 관심이 많다. 현재 전주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 『어느 철학자의 농활과 나누는 이야기』, 『왜 당신은 동물이 아닌 인간과 연애를 하는가』가 있고, 『채식의 철학』, 『동물해방』 등의 책을 번역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누군지와 무관하게 더 많이 고통 받는 쪽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공평무사하다고 믿으면서도, 이러한 논리를 동물에게 적용할 때면 잣대를 달리한다. 하지만 일관되게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 외에 별다른 근거 없이 인간의 고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곧 종차별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계산법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게만 국한되며, 동일한 처우가 언제나 동일한 양의 고통이나 행복을 산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채식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고통에 관한 논의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식물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지, 고통의 비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생태계와 관련된 논의로 동물은 먹이사슬 안에서 서로 잡아먹는 일이 자연스러운데, 왜 인간은 예외인지, 인간이 다른 동물을 먹는 것은 적자생존의 법칙이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건강과 관련한 논의다. 채식만 함으로써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면 육식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질문이 주를 이룬다.

첫 번째, ‘고통에 대한 논의’에서 제기되는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근거를 들 수 있다. 우선, 동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고통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또한 그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인간과 유사한 신경학적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척추동물, 특히 조류나 포유동물의 신경계가 근본적으로 인간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동물이 받는 고통을 생각해 채식을 한다면 식물은 고통을 느끼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다. 이 질문에 식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근거는 분명치 않다고 답하는 게 가능하다. 식물은 신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특정한 상황에서 인간과 유사한 행동이나 신경학적 반응을 보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설령 식물이 고통을 느낀다고 해도 현대 과학의 증거를 포함해 몇몇 정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동물에 비해 식물이 고통을 느끼는 강도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물보다 식물을 먹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 (중략)

채식은 윤리 이론인 공리주의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채식에 반대하는 여러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정당화된다. 채식을 해야 하는 윤리적 이유에 대한 고찰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도덕적 판단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갑의 입장이 되었을 때 을의 입장을 생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게 한다. 또한 자신의 이익과 상충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는지 알게 하며,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게 한다. 이번 강연이 단지 채식을 권장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부디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